

관광명품 도시 사업 본격화

임실군, '2025 임실방문의 해' 새로운 관광·더 특별한 관광 선사

임실군이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천만관광 시대, 관광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임실방문의 해로 '이제, 임실을 바라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천만 관광객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관광, 더 특별한 관광'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군은 지난해 육성호와 임실N치즈축제 등을 중심으로 한 사계절 축제로 888만명이 임실을 찾은 만큼, 임실방문의 해인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임실군 생활 인구는 2018년에 498만명에서 2023년 853만명, 2024년에는 888만명으로 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실군의 대표 축제인 국화꽃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3대 축제에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관광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군은 임실N치즈축제의 전국적인 명성과 함께 육성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 천오백만 반려인의 성지 오수 의견관광지, 왕의 숲 성수산, 국민관광지 사선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먼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전국 각



임실군이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천만관광 시대, 관광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지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는 육성호 봉어섬 생태공원에서는 4개의 대표 축제 기간에 입장료를 할인하는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비 할인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특별 투어 프로그램으로는 도내 5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표 관광지 투어를 실시하고, 매력적인 아간경관을 활용한 야경 투어, 방송작가 캠프 등 특별한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군은 작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과 관광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이 운영하는 관광사업과 임실군

의 관광 인프라를 연계한 여행수요 창출과 마케팅 협력으로, △미식투어 △메가인플루언서 활용 투어 △임실체험관광 상품 등을 통한 추진하여 관광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는 천만 관광객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육성호와 치즈테마파크, 오수 세계명경테마랜드, 성수산, 사선대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확고히 구축하여 '관광중심지 임실'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심 민 군수는 "2025년은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라며 "임실방문의 해를 성공시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관광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글로벌 혁신 역량 강화

동계 미국 실리콘밸리 미래 모빌리티분야 이노베이션 교육 발대식 개최

남원시는 전북대 RSI미래수송기사업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관내 학생들이 13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라는 세계적인 혁신 환경에서 창의적 사고와 협동심을 배양하며 미래 진로를 설계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최근 전북대 RSI 미래수송기사업단과 협약을 맺고, 지난 9일 스위트호텔 남원에서 '동계 미국 실리콘밸리 미래 모빌리티분야 이노베이션 교육'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개최, 글로벌 인재 육성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교육은 전북대학교 RSI미래수송기사업단과의 협약을 통해 남원시 학생들에게도 글로벌 혁신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발대식에는 남원시와 전북대 RSI미래수송기사업단 관계자, 참가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반적인 교육 일정과 세부 계획, 현지에서의 주의 사항과 안전교육이 안내됐으며, 이후 참가학생들은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11박 14일동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본격적인 교육에 참여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산호세주립대학 교수진과 실리콘밸리 전문가들이

강의와 멘토링을 제공하며, 실리콘밸리 내 애플, 구글과 같은 유명 기업을 방문해 혁신 생태계와 첨단 기술 트렌드를 배우고, 팀 프로젝트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창의적 사고법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트렌드 강의와 멘토링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실리콘밸리 내 유명 기업과 대학을 방문하며 현장의 혁신 사례를 체험하고, 팀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사업화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프로젝트 발표와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참가자들의 역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북대 이일재 단장은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첨단기술과 미래산업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는 전북대와 협력해 관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한 미래의 혁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 덕치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덕치면은 지난 6일부터 2일 동안 노인일자리(마을지킴이)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이해, 노인일자리 사례로 배우는 안전사고 예방,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이 알기 쉽게 회의실에서 동영상 시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어르신들이 OX 퀴즈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유형별 사고에 대하여 예방 및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마을지킴이 사업은 먼 소재지 주변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환경정비를 통해 깨끗한 내 고장 만듦에 적극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형준 덕치면장은 "어르신들이 교육을 통해 일상속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1년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박차

빈집정비 등 3개 사업 추진

순창군이 2025년도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약 5억 6,700만원을 투입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의 빈집·행랑채 철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올해부터 새롭게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과 '행안부 빈집정

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사업인 빈집·행랑채 철거 지원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자진철거를 지원한다. 빈집 철거는 일반 가옥 300만원, 슬레이트 지붕 가옥 400만원을 지원하며, 행랑채 철거는 일반 가옥 120만원, 슬레이트 지붕 가옥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농촌빈집 45호와 행랑채 40호 총 85호의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도입되는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지붕 재료와 관계없이 군 관내 농촌주택 50호를 대상으로 한다. 각 가구당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행안부 빈집정비사업은 군에서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며, 호당 700만원 규모로 10호를 정비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가 고향사랑기부제와 출향장학재단 후원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 기부자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남원 사랑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고 그 역사적인 시작을 기념하는 제막식을 13일에 개최했다.

남원 사랑 명예의 전당 제막식 개최

남원시가 고향사랑기부제와 출향장학재단 후원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 기부자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남원 사랑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고 그 역사적인 시작을 기념하는 제막식을 13일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며 남원에 뜻깊은 후원을 지속해 온 기부자 20여명을 초청해 기부금 사용 경과를 보고한 뒤 제막식, 평판식을

진행했다.

한 기부자는 "기부금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잘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고향 남원을 위해 꾸준히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에서도 기부자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살기 좋은 남원 만듦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용접 화재 주의하세요"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낮은 기온으로 인해 화재 발생위험이 커진다는 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용접이나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은 약 1,500°C에 달하는 고온으로,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겨울철에는 공사장 주변에 쌓인 먼지와 건조한 환경이 화재 발생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안전수칙은 △안전감독자 지정 △작업장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반경



10m 이내 가연성 물질 적치금지 △가연성 바닥재로 마감된 경우 물을 뿌리거나 모래로 덮기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